

제 목	여행은 마치 외롭지 않은 자각몽과 같아		
소속 대학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과	청각학과
학 번	2020****	이 름	정*현

<잠드는 시간>

아름다운 것들은 일찍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때늦은 개화와 이른 낙화로 아직 내 눈에 만족스럽게 담아내지 못한 벚꽃이 그러하다. 내 마음이 봄의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탓인지, 아니면 봄이 가지를 떠난 꽃잎만 허락한 탓인지 알 수는 없다. 확실한 건 빛깔만 변한 세상이 버스 유리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광경이 꼭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온 나의 삶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위로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였다.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확실하다. 1년. 일상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1년은 길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한 글자만 바뀌 일생이라는 광범위한 기준으로 볼 때 1년은 하찮게만 느껴진다. 길고 짧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여자친구와 보낸 시간이다. 일반적인 연인들의 기념일로 우리는 지금 인천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인천의 건물들이 서울의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단조롭지 않으며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전부 계획되어 있다는 듯 완벽한 조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에 도착하여 그것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읽어내리니 더욱 그 사실들이 체감되었다. 인천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그마저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모르던 세상을 한 발짝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 이 얼마나 멋지고 유익한 일인가. 내가 모르는 방대한 세상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곧 점심이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치 없이 끼어드는 신호를 원망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지, 고운 손이 나를 이끌고 어시장을 향하였다.

<숨 쉬는 시간>

나는 어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한다. 적당히 활발한 사람들, 살아있음을 알리려 펄떡대는 물고기들,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바닷냄새, 적당히 풍겨오는 튀김 냄새 등등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껏 마음이 편안해지며 나 자신마저 활발해지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그중 초밥을 가장 좋아한다. 아마 초밥을 이쁘게 포장하여 가져간 후에 부둣가 앞 광장에서 연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낭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하였다. 부둣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잔잔한 바다향을 느끼며 여자친구와 발을 맞추어 걷다 보면, 곧 저만치 넓은 광장이 펼쳐져 보이게 된다. 유명한 부둣가인 만큼 사람도 많아 광장의 덩치가 제법 커다랐다. 우리는 드넓은 곳 중, 바다가 보이는 곳 바로 앞 벤치에 자리하였다. 옆 벤치에는 부부로 보이는 노인 두 명이 바다와 햇살을 동시에 만끽하며 자고 있었는데, 우리는 두 노인이 혹시라도 잠에서 깰까 포장해 온 초밥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분명히 알록달록 이쁘게 포장되어있던 초밥들이 언제, 어디서 흔들렸는지 서로 부둥켜안고 있어, 모양새가 엉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망했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행 초반부부터 음식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리면 그거대로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이다. 우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약속한 듯 원래 여행은 무엇이든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로하였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다랗기에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 바다 위에 춤을 추고 있는 유람선도 우리의 기분을 달래려는 듯 태양 빛에 이쁘게 반짝이며 지나가고 있었다. 비록 자신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초밥들이었지만, 입으로도, 눈으로도, 냄새로도 모두 바다향을 느끼고 있자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 주길 바랐던 것 같다. 아직 활발한 점심때였지만 분위기는 잠잠하여 나도 모르게 침취하게 되었던, 아주 마음에 드는 장소였다.

<낮선 꿈을 꾸는 시간>

요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중국 음식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특히 짜장면같이 이미 한국에 뿌리 깊게 정착한 음식부터 최근 들어서야 인기가 치솟은 마라탕, 탕후루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멋진 음식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놀랍게도 인천에는 그러한 장소도 존재한다. 여자친구와의 인천 여행 계획서에 '차이나타운' 항목을 넣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후회스럽지 않은, 아주 완벽한 선택이었다. 내가 살면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경험은, 아니 애초에 방문을 고려해보는 경험은 이때 말고는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나에게게는 새롭고 값진 시간이었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 좋은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곧장 차이나타운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거리는 꽤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스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축복받은 듯이 날씨가 좋았던 탓에 그마저도 우리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덜컹하며 몸이 붕 뜨는 순간순간도,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서 나는 구수한 냄새도,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얹게 잠든 여자친구도 모두 여행의 일부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몇몇 정거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쏠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창밖의 풍경도 그것에 한몫했다. 물론 버스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에 불과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한 지역의 시가지 풍경을 잘 담아내어 주는 수단이라고도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 어느샌가 버스 창가 쪽에 자리하는 버릇까지 생겨 버렸다. 곧 우리의 정거장을 알려주는 안내음을 듣고 나는 기대어 있는 여자친구를 깨우며 함께 다시 땅을 밟았다. 아직 잠이 덜 깬는지 비틀거리며 버스를 내리는 여자친구의 모습도 제법 볼만하였다. 버스를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자신이 목적지라는 것을 유난히 티를 내는 빨간색 기둥들이 우릴 반겼다. 하지만 우린 그 반감을 일단 제쳐두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도 더웠다. 4월 날씨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린 커피숍의 반김에 먼저 응해버렸다. 계획에 없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힘들음을 무시할 순 없을 노릇이니 말이다. 여자친구는 커피, 나는 에이드를 손에 들고 나서야 비로소 빨간색 건축물들에 응할 수 있었다. 잠시 제쳐둔 녀석들이라 그런지 빨간 것이 꼭 화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조금만 걸었을 뿐인데도, 이곳이 이국의 땅인 것처럼 느껴지다니 왠지 한국 땅이 아닌 낯선 땅에 들어온 기분마저 들었다. 차이나타운이 왜 차이나타운인지 각각의 건축물들과 음식들이 말해주었다. 한자로 된 간판, 지붕

마저 빨갭게 칠해진 가게들, 한국의 것과 묘하게 다른 탕후루까지 확실히 한국과는 색다른 문화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없다. 만일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이런 기분일 것만 같았다. 신기한 점은, 한국에서 짜장면을 처음으로 팔았던 가게도 이곳에 존재한다고 한다. 차이나타운의 역사도 얼마나 길었는지 알려주는 사실이었다. 차이나타운은 생각보다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올라가는 내내 사탕수수가 어떤 맛일까 궁금하였지만, 나에겐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풍경을 내 눈에 담는 것으로 만족했다. 언덕을 조금 올라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중국식 제과점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곳이었다. 제과점은 사실 빨간색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이곳에는 잘 어우러져 있었다. 외관은 이국스럽지만 내관은 한국의 여느 제과점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특히 풍기는 냄새는 일반 빵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유사했다. 고소하면 서도 분유 냄새가 살짝 섞인 그런 냄새였다. 이름 모를 제과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대왕 카스테라부터 파인애플 잼을 얹은 쿠키, 양파 향이 나는 비스킷 등 분명히 냄새는 한국과 유사했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들이었다. 이곳을 벗어나면 더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언급한 제과들을 흘린 듯이 각각 2개씩 포장하였다. 만약, 제과점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향에 이끌렸을 것이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의 꽃은 역시 제과나 탕후루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옛 중국다운 풍경들은 언덕을 오름에 의미를 부여해주며 옛 중국의 희극이나 위인 등을 나타내는 벽화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특히, '패왕별희'라는 경극을 나타낸 벽화는 영화로도 본 적이 있어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산물이 벽화로 형상화되어있는 것이 신기하여 여자친구에게 실컷 아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여 이내 포기하였다. 또한 동자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인지, 어떤 형상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인지 모를 낯선 동상들도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굴리게 했다. 무슨 암적으로 창조된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매끈하게 생겨 만져보고도 싶었다.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 눈을 너무 바빠 움직여 아마 소리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바닥도 회색 돌들로 정갈하게 깔려있는 것이, 옛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받았다. 방금 보았던 동상들과 비슷한 밝은 회색을 띠고 있었다. 그 돌들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어느새 다시 내리막길이 나오는데, 그것은 끝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생각보다 그 면적이 크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었다. 중국과는 사뭇 다른 또 다른 역사가 이어져 있었으니까.

<악몽을 들여다본 시간>

인천은 여러 가지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살아 숨 쉬는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신기한 것은, 한껏 중국의 문화를 맛보다가 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뼈아픈 일제의 역사가 바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박탈당한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풍경은 어떠하였는지 자세한 내막은 대부분 모를 것이다. 그 시대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대략적인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이곳에 존재한다. '대불 호텔전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써, 내가 서 있는 곳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 그런지 옛날 특유의 낡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외관의 형식만큼은 정말 현대 시대의 건축물이

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특이했다. 베란다 사이사이의 기둥과 서양 특유의 색을 가진 벽돌, 어떻게 개방되는지 모를 십자형태의 창문까지 그 구색을 갖추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중국의 땅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역사를 마주하고 나니 괴리감과 신기함 그 어느 사이의 감정이 느껴졌다. 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것을 계획해 준 여자친구에게 지금도 감사한다. 우리는 이 멋진 건물을 사진에 먼저 담아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여자친구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관람을 끝내고 다시 찍겠다고 했지만 말이다. 나는 냄새에 민감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냄새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민감한지 전시관에 들어서면서도 후각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편백 나무 같은 냄새에 흠냄새가 적당히 어우러진, 자연의 냄새가 나는 것이 시작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전시관은 총 3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1층은 건축 방식에 대한 소개, 2층은 객실 재현, 3층은 그 당시 생활상을 담아내었다. 그중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에 위치한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과 하루 객실 요금이 2원 50전이었던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국의 세련된 건축물의 주인이 일본인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일본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또한 요금은 조선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23전이었던 것을 빗대어 볼 때, 꼬박 열흘 이상을 일해야 이 호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서양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선 막대한 것을 내놓아야 했다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하대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의미로 흥미를 느꼈다. 숙박시설을 재현해놓은 것도 나름 재미 요소 중 하나였다. 원목 자재에 서양 특유의 구불구불한 의자와 탁자, 천장에 달린 자그마한 샹들리에, 당장이라도 클래식 음악이 나올 법한 축음기 등등 모두 생각보다 세련되어 보여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시대와 비교해도 크게 끌리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다. 이 전시관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다. 관람을 끝내고 안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다음 전시관이 이어진다는 점이였다. 길을 따라 철문을 열고 가지런히 우릴 맞이해주는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인천 개항 박물관'이 눈동자에 비치게 된다. 이곳을 들추어보면, 오늘날 인천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은 개항하는데 있어서도 계획이 있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인천을 개항하여 자신들의 주요 사업 업무를 담당하려 했던 것이였다. 서양인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인천을 거쳐야 했기에 그 점을 노린 듯하였다. 조선은 무지했으며 적은 우릴 너무나 잘 알았다. 조선은 나약했으며 적은 너무나 강했다. 이곳에 오니 그 사실이 더욱 뼈가 시릴 정도로 느껴졌다. 인천 개항 박물관에는 4개의 전시실이 존재하였는데, 1전시실은 근대문물, 2전시실은 우리나라의 최초 철도인 경인선, 3전시실은 당시 인천의 풍경, 4전시실은 일본이 인천에 설립한 은행에 관한 것이 전시되어 있었다. 1전시실의 근대문물만 살펴봐도 당시 조선이 얼마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못 하였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이쁘게 촬영된 사진엽서와 우표, 등대 따위를 조선이 알 길이 있었을까? 문물들은 모두 손에 닿지 말라는 듯이 유리로 감싸져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실제로 사용된 우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릿누릿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내 왔는지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가장 신기했던 점은, 우체부 일을 했던 조선인의 모형이였다. 변해가는 세상에 마냥 가만히 있던 조선이 아니며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려던 노력이 돋보이는 것이였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

면 새로운 문물에 조선인이 맞춰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조선은 그저 변해가는 시대에 끌려간 것이 아닐까? 하고도 해석할 수 있었다. 자존심이 강한 나는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상상을 해보질 못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다음 제2전시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경인선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있다. 그곳에는 경인선 열차 내부를 재현해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열차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넘어지지 말라고 달린 손잡이와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신한 느낌이 깃든 의자 등 뭔가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 의자에 살포시 앉아보았다. 분명히 폭신하지만 폭신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경인선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열차인 만큼 그 의미도 깊다. 하지만 이러한 경인선마저도 서울로 용이하게 이동하려는 일본의 속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3전시실의 인천 풍경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조선이라고 하면 흑백 풍경에 초라한 초가집들이 널려있는 상상을 많이 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의 풍경은 달랐다. 그 당시로 치면 높은 3층 건물에 전깃줄까지 널려있는, 그야말로 근대의 풍경이었다. 그 사이로 한복을 입은 조선인과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이 교차하며 걷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양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도시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보유한 인천을 보며 아름답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은 사실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왠지 내가 과거로 돌아가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다면 이때의 인천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을 것 같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와 대조되는 옛 풍경은 그간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떠 있던 노을 속 구름도 지금 아직도 느긋하게 떠다니고 있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마지막인 4전시실로 향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 아니,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마저 일본이 세웠으니 누구의 역사인지 헷갈릴 법한 은행의 역사는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일본 제1은행' 인천 지점은 개항기 조선에서 생산된 금괴나 사금의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목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기 전부터 일본이 얼마나 계획적이었고 야욕이 넘쳤는지 절실하게 잘 알려주는 부분이었다. 아직 외국에 불과한 조선의 재정에도 본격적인 개입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일본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비극은 일본의 치밀함이 아닌, 조선의 존재하지 않는 대책성과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린 적을 몰랐고 적은 우리를 잘 알았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결국 조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둘러본 전시관들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역사의 되풀이는 우리의 몫이라고.

<깊게 잠든 시간>

과거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전시관 건물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처음 들어올 때 건물에 낡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지만 관람하고 나와서 다시 보니 어쩐지 낡아 있었다. 피와 땀을 흘리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치고 차이나타운

입구를 거치면 바로 맞은편에 '월미 바다열차 탑승 역'이 존재한다. 전시관부터 다시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곳까지 오다 보니 지나온 추억을 회귀하는 것만 같아 기분이 묘했다. 만약 혼자라면 이러한 기분이 느껴지진 않았을 것이다. 월미 바다열차는 탑승 역 건물 3층에 위치하였다. 이름이 바다열차이기에 여느 기차와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모노레일 형식으로 선로를 따라 인천 곳곳을 탐험해볼 수 있는 놀라운 코스였다. 탑승 10분 전인데도 사람들이 탑승지역에 줄을 섰다.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어르신들과 한 젊은 부부, 앓되어 보이는 학생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다. 마치 나의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였다. 탑승장은 지하철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앞에는 레일이 있고 안전을 위한 문까지 분명히 처음 타보는 것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다. 안전문 앞에는 인천의 유명한 곳들을 소개해주는 듯한 전단들이 붙어 있었다. 전단 속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괜히 아쉬워질까 깊게 살펴보진 않았다. 전단지들은 오래되었는지 찢어진 부분들이 있었다. 다음에 올 때도 모두 찢기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어 주길 바란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만치서 열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 소리와 열차가 선로를 지나다니는 소리, 바람 소리가 적당히 어우러진 그런 소리였다. 열차는 생각보다 크기가 작았다. 앞뒤는 KTX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하얀색으로 도색 되어있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바다열차 특성상 맨 앞자리가 바다를 제일 잘 보여줄 것 같아 우리는 재빨리 맨 앞자리에 탑승하였다. 실내는 깔끔하다는 느낌이 더더욱 들었다.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우리의 옆에는 어린 학생들이 위치하였고 우리 앞에는 부자로 보이는 중국인 여행객 두 명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열차의 중간에는 까만색 정장에 중절모를 쓴 멋진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그분은 자신을 관광 안내원이라 소개하며 앞으로 있을 관광지들을 설명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 하셨다. 안내원까지 계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좋은 느낌 속에서 한껏 기대감을 품었다. 그리고 그 기대감과 동시에 열차가 출발하였다. 모노레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차는 내 생각보다 훨씬 매끄럽게 나아갔다. 이렇게 부드러운 탑승감은 거의 처음이라고 느껴졌다. 게다가 레일이 지상에서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인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태양 빛에 반짝이는 바다까지 우리의 눈동자를 때렸다. 안내원 할아버지께서 출발과 동시에 안내를 시작하셨지만, 그것들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워 우리는 뉘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를 지나쳐서 동화마을을 거쳤고 월미공원 쪽에 다다랐다. 월미공원은 대도시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의 보존 상태가 훌륭하였다. 열차 선로를 가운데로 끼고 푸른 나무들이 길을 안내하는 듯 줄지어 있었다. 아마 봄에 왔으면 이 모든 것이 벚꽃의 색으로 채워져, 그것만큼 더없이 훌륭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만족스럽다. 적어도 연인과 함께라면 벚꽃이 아니더라도 핑크빛 기운이 감도는 느낌이니까. 다음에는 이곳을 직접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월미공원을 지나가다 보면 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과 월미 전망대, 갑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시하고 있는 갑문홍보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관찰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징들이기 때문에 안내원 할아버지의 말씀이 뚜렷하게 잘 들려,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한껏 듣다가 다시 들리지 않는 시점이 존재하였는데, 열차가 왼쪽으로 선로를 변경하였을 때의 그 풍경이

보였을 때였다. 오른쪽으로는 푸르른 바닷가, 왼쪽으로는 테마파크로 바이킹이나 관람 열차가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풍경이 신기하게도 한껏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치 바닷가에서는 갈매기들이, 관람 열차에서는 탑승한 사람들이 우릴 향해 손을 흔들고 있을 것만 같았다. 특히 이 바다는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크게 뒤흔들었던 인천상륙작전이 다름 아닌 이곳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있는 UN군들을 나타낸 동상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숙연한 동상 맞은편으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날의 치열함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 그분들은 지켜낸 이 낯선 땅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실 것 같았다. 눈알을 굴리며 풍경에 감탄하다가 절로 숙연해지는 나 자신이었다. 어느덧 그 분위기도 지나칠 무렵, 이번엔 넓은 항구가 보였는데 그 항구에는 수많은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번호판이 없다는 점이였다. 단순히 사람들이 항구에 주차한 자동차들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우리의 궁금증을 눈치채셨는지 아니면 가이드의 일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곧바로 수출용 자동차라고 말씀해주셨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동차 수출 주요 지역도 인천이었다. 자신들은 떼 없이 깨끗하다는 듯 한껏 반짝임을 내뿜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것도 그거대로 장관이었다. 공교롭게도 녀석들은 주인을 맞이하면서 그 빛을 잃어버린다. 수출용 자동차는 그때가 조금 늦어질 뿐이다. 하지만 빛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더 값진 것이기에 슬프지는 않을 것 같다. 사람도 그렇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가 널려있는 해안마져 지나가고 보니 이 열차도 슬슬 종착 지점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짧지만 강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아니,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열차의 어떤 점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 탑승감? 같이 탑승한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간이기엔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덜컹거리는 시간을 좋아했다. 나는 활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좋아했다. 나는 나의 눈을 맑게 해준 자연의 노랫소리를 감상한 시간을 좋아했다. 하지만 단 하나, 끝을 알리는 선로 마찰음을 듣는 시간은 미웠다. 나의 마음을 모르는지 아니면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것인지 여자친구는 얼른 내 손을 잡고 열차에서 내려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내원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눈과 귀를 모두 열게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바깥으로 나와보니, 마치 좀 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바다열차는 나에게 너무나도 새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해주었다. 여자친구와 탑승 건물을 등지고 걸으며 나는 말하였다. "월미는 별미였다."

<깨어난 시간>

무한 굴레가 들어 있을 것만 같았던 꿈에서 깨어났다. 버스 창문 밖에는 웬지 모르게 한 번 보았던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내 어깨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분명히 나처럼 달콤한 꿈일 것이다. 좋은 순간들은 언젠간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이 한순간의 꿈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보곤 한다. 좋은 시간을 만끽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아쉬움을 마주한다. 소위 말하는 '꿈만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유래했을 것이

다. 하지만 꿈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사실에 괜스레 외롭고 무서워질 때도 있다. 그럴 땐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원하게 된다. 그때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행이라는 꿈을 꾀보자. 그러면 그 꿈은 더이상 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닐 것이다. 내 꿈 한켠에서 분명히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은 당신도 보고 들었던 공유된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이 깨어나는 것이다. 현실을 마주하고 나면 분명 달콤했던 한순간의 자각몽이었다고 느낄 테지만 그렇기에 이 방대한 세상의 티끌만 한 일부라도 경험했던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행이 꿈과는 오히려 다르길 바란다. 깨어나면 바로 잊혀지는 꿈같이 나의 좋은 추억이 쉽게 잊혀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은가. 우린 자각한다. 어쩌면 이 여행이 한순간의 꿈일 수도 있다고. 우린 자각한다. 이 여행이 언젠간 기억 속에서 잊혀질 거라고. 하지만 분명히 수산시장엔 우리의 발자국이, 차이나타운 제과점엔 우리가 건넨 재화가, 전시장 문엔 우리 손의 지문이, 바다열차 의자엔 우리 옷에 있던 먼지가 모두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들 모두가 우리의 '실화'이다. 다만, 자각몽 속의 실화이다. 우린 여행이라는 꿈을 자각했고 여행이라는 실화를 써 내려갔다. 좋은 경험으로 이루어지면 분명 좋은 실화를 쓰게 된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해본다. 여행이라는 자각몽에는 악몽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